

# 선발 등판 꿈 무르익는 양현종 “선발 기회 오면 좋겠지만...”

“두 차례 등판서 코치진이 주문한 이닝 소화해 만족”  
 “커브 아직 완벽하지 않아...완벽해지면 던지겠다”

‘꿈의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선발 등판의 꿈에 다가가고 있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현종은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화상 인터뷰에서 선발 등판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선발 등판 기회가 오면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내 임무는 팀이 힘들 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코치진이 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MLB에서 두 차례 구원 등판한 양현종은 “코치진이 주문한 이닝을 소화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내려온 것이 만족스럽다”며 “첫 번째 등판보다 두 번째 등판 때 더 편하게 던졌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자신있는 공을 던졌다”고 자평했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양현종은 4월 27일 마침내 빅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빅리그 콜업 당일인 지난달 27일 LA 에인절스전에서 4⅓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1일 보스턴전에서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양현종은 4⅓이닝 무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연달아 패투를 선보인 양현종의 선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한 양현종은 MLB 선발 등판 가능성에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양현종과의 일문일답

▶메이저리그에 두 차례 등판한 소감은.

“확실히 첫 경기 때보다 어제 투구가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경기에 나간다면 지난 경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첫 등판과 두 번째 등판 때의 차이점은.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그래도 첫 등판보다 두 번째 등판 때 더 편하게 던졌다. 내 공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자신있는 공을 던진 것 같다.”

▶볼펜 투수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중에도 볼펜에서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한다.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다. 내가 느끼기에는 선수들이 자신있게 던진다. 경기 전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많이 한다. 마무리 투수인 이인 케네디가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최근 텍사스 볼펜 성적은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처음이라 전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 내가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

▶선발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선발 등판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내 임무는 팀이 힘들 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코치진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한국에서 외국인 선수 통역을 어떻게 대해주나.

“아구에 대해 선수들보다 잘 알지는 못해 미숙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알려준다. 통역도 배워가면서 지낸다. 여기서 마친 것 같긴다. 팀 선수들이 잘해주고, 통역도 잘하고 있다. 장난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진다. 통역도 한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발 투수로 뛰다가 메이저리그에서 볼펜으로 뛰고 있다. 바뀐 루틴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 선발로 나서다가 마무리 투수로 뛰고 있는 케네디가 도움을 주나.

“캠프 때부터 볼펜으로 나서 1이닝씩 던지면서 볼펜 투수로 뛰는 것에 적응했다. 선발을 하다가 볼펜으로 뛰면서 힘든 점은 몸을 빨리 풀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캠프 때부터 볼펜으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 나도 케네디의 성적을 봤다. 선발로도 너무 훌륭한 선수였고, 마무리로도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사진 = MLB 화상 인터뷰 캡처)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다. 선발과 마무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었다. 친근하게 잘 답해주고, 마운드에서 자신있게 던지라고 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커브를 잘 안 던지는데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메이저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구종을 던지는 것이 무리수인 것 같다. 완벽해지면 연습을 많이 해서 던지도록 하겠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 같다.

“연락을 자주 하지만 항상 보고 싶다.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에서 잘 적응하라고 한다. 아내나 가족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잘 이겨내고 있다.”

▶마운드에 오를 때 국내 팬들의 응원을 생각하나.

“아직까지 한국을 대표해서 던지는 입장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내 공을 던져야하고, 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짊어지고 던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 보적이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 내 공을 팀을 위해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차례 등판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을텐데 만족스럽다고 느낀 점은.

“코치진이 주문한 이닝을 소화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내려온 것이 만족스럽다. 아직 타자를 압박할 수 있는 구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이 보완할 점이다.”

뉴시스

## 당구 박용준, 생애 첫 대회서 우승 ‘돌풍’

전남체육회, 남자부 스누커 우승...서서아도 여자 포켓10볼 우승 차지



귀화 당구선수 박용준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돌풍의 바람을 일으켰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박용준(전남당구연맹)이 27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1 제9회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남자부 스누커 결승에서 국내 1위 허세양(울산)을 3:1(39:37, 50:43, 21:33, 43: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출신 귀화선수인 박용준은 1년 만에 데뷔하지 않아 생애 첫 출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제대로 알리게 됐다.

여자포켓 랭킹 1위 서서아는 여자부 포켓 10볼에서 인천체육회 박은지를 8:6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장문석과 조를 이뤄 출전한 혼성부 포켓9볼 단체전에서는 준결승에서 대구연맹의 최성욱-진혜주 조에 3:8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까지 추가했다.

현재 대결로 주목받은 김행직은 남자부 3쿠션 개인전 4강에서 친동생 김태관(화성시체육회)을 만나 24:50으로 패하면서 3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장문석도 남자부 포켓10볼 개인전 준결승에서 고태영(경북)에게 8:9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무 회장은 “전남소속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한 선수에게 이번 우승이 큰 의미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전남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당구선수로 명성을 날릴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영암 기업도시에 KPGA 골프레저타운 조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상호지구 KPGA TOWN 조성계획(안)

영암 기업도시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골프레저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도와 KLPGA는 2일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암 상호지구 골프장을 메이저 대회 개최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해 ‘KLPGA 공식 골프장’ 명칭을 사

용하고 매년 KLPGA 공식 대회를 개최한다. 골프장 인근에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만들어 KLPGA 회원의 교육과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골프 지방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 골프 발상지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 골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골프 특화 박물관과 KLPGA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로

## 전남도 업무협약...매년 공식대회 개최 아카데미·연습장 조성 교육·전지훈련

건립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LPGA는 연수원과 레저시설을 결합한 복합레저공간인 ‘KLPGA 플라자’를 건립해 국내외 골프선수와 지방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와 골프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LPGA 네이밍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이날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 앞서 양덕준 사우스링스 영암 CC 회장은 골프레저타운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사우스링스 영암CC는 영암 기업도시인 상호지구 내 골프장으로 영암호 매립지 일대에 조성했다. 스코틀랜드의 링스코스 스타일을 적용해 코스 조성 당시부터 원형지의 특성을 반영해 곳곳에서 생태습지, 토착 수종, 수로, 철새 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골프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암 상호지구 골프장에서 메이저 골프대회를 열고, 특히 골프 특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암 기업도시의 명품 골프장에 KLPGA의 브랜드와 명성을 더해 세계적인 골프레저타운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佛 언론 “축구선수 석현준, 프랑스 귀화 준비”

한국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프랑스어 걸림돌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된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프랑스 귀화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언론 ‘레스트 에클레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선 프랑스에서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석현준은 이 조건에 충족했다. 국적 취득을 위해선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어 하는데 이 조건은 2022년에 충족된다. 석현준은 프랑스 프로축구 2부 트루아에서 뛰고 있다.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에 올라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에 대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석현준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했지만 한국의 메달 획득 실패로 병역특



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와 달리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것도 언급했다. “석현준은 짧은 몇 주 기조군사훈련만 받을 수 없다. (손흥민과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석현준은 당시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화를 위해선) 프랑스어를 구사해야 한다. 이점이 석현준에게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도 전했다.

## 김효주, LPGA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 우승

### 5년 4개월만에 정상

김효주(26)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60만 달러)에서 장상에 등극했다. 김효주는 2일(한국시간) 싱가포르의 센토사 GC(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아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친 김효주는 16언더파 272타를 친 한나 그린(호주)을 1타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 2016년 1월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이후 약 5년 4개월 만에 우승이자, L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공동 8위에 머물러 우승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5라운드부터 무섭게 버디쇼를 펼쳤다.



8개의 버디를 잡아내고 먼저 경기를 끝낸 김효주는 그린의 경기를 지켜봤다. 그녀는 14번홀에서 이글을 잡아낸 후 16번홀에서 버디를 낚아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러나 17, 18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우승컵을 김효주에게 내줬다. 박인비(33)는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쳐 린시유(중국), 패티 타버타나킵(태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